

광주 장기 방치 흉물 자전거 처리 ‘골머리’

아파트·대학교·터미널 등 “보기 흉하다” 민원 잇따라
단속 공무원 “개인 재산이라 임의 처리 어려워” 하소연

“녹슬고 바퀴가 빠져 있는 자전거들이 보관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막상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개인 재산이라 함부로 못한다네요.”, “대학교 곳곳에 방치 자전거가 많다 보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거주하는 주민 문애영(여·56)씨는 최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22일 방문한 문씨의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자전거 수십 대가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 대부분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고 바퀴가 찌그러지거나 안장이 빠진 자전거도 여러대 보였다.

하지만 아파트관리소측은 어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임의대로 처리했을 경우 자전거 주인의 항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 내 북구국민체육센터 옆도 수십대의 녹슨 자전거가 방치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학생은 “1년 넘게 녹슨 자전거들이 한데 엉켜있다”고 했다.

자전거 이용 인구(만 12세~69세 이하·한국교통연구원)가 1340만명을 넘어서면서 광주지역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터미널 등 곳곳이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녹슨 자전거가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오랫동안 방

치된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방치 자전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지난 9월 조선대치과병원 앞 자전거보관소에 3개월 정도 놓여 있던 자전거가 없어졌다는 주인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뻘 것이다.

조선대측은 방치 자전거를 치우면 절도죄로 신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한 방치하고 있다. 결국 방치 자전거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학생들이 떠안고 있다. 전남대학교 등 다른 대학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광주 관문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인도에도 녹슬고 훼손된 자전거들이 수개월간 버려진 채 방치돼 광주의 첫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터미널 운영팀은 지난 6월 전반적으로 방치 자전거를 정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항목에서는 자전거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있다.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를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호하게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도로, 광장, 공공시설 등에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열을 후에 자전거를 수거한다”며 “최근 수거되는 자전거의 경우 대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폐기처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주인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애견카페서 개에 물려

광주의 한 애견카페에서 30대 여성이 개에 물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A(여·35)씨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기르던 포메라니안이 카페를 찾은 B(여·30)씨의 오른쪽 다리를 물었다. 개에게 다리를 물린 B씨는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애견카페 주인 A씨는 경찰에서 “울타리 안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갑자기 손님을 보고 흥분해 울타리를 넘어 B씨의 다리를 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A씨의 주의 의무위반이 확인되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어선 전복 노부부 사망·실종

흑산도 해상에서 노부부가 탄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2분께 신안군 흑산도 하죽도 북서쪽 130m 앞 해상에서 1.56t급 선외기 H호(흑산선적)가 전복돼 선장인 남편 김모(68)씨와 아내 서모(73)씨가 바다에 빠져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실종됐다.

21일 낮 12시 20분께 사고해역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서 아내 서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민간어선에 의해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7척, 헬기 2대, 해군함정 3척 등을 동원해 실종된 김씨를 수색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폭설 대비 미리미리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22일 문흥동 아적장에서 동주민센터 차량에 겨울철 폭설 대비용 친환경 제설제와 모래주머니를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화 3남 갑질’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방법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동일 사건 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을 고려

해 사건을 광수대로 내려보내 형사3부가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너희 아버지 뭐하시느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하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 ‘갑질’로 여겨질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家)의 각종 법적 자문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21일 오후 한화그룹을 통해 사죄 입장을 밝혔지만, 광수대는 사건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변협도 김씨를 폭행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를 본 변호사들의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연철뉴스

‘부도’ 광명주택 회장 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반응

“피해액만 100억원에 달하는데…” 돈 뜯긴 하청업체 “사는 것이 지옥”

추가 범죄 사실 드러나면

경찰, 세번째 영장 신청 검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들은 대학학비가 없어 지난해 휴학한 뒤 군 입대를 했고, 아내는 일용직 잡일을 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도처리된 ‘광명주택’에 돈을 빌려줬다가 부도위기를 겪고 아 광명주택에 6억원을 빌려줬는데, 곧바로 부도를 내더라”며 울먹였다.

정씨는 “그나마 경찰에서 광명주택 회장과 그 아들들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안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면서 “그들(광명주택 회장과 사장 등)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용서를 구하거나, 빌린돈을 갚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돈 있는 자들은 역시 법 앞에서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주택의 부도로 정씨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는 50여곳으로, 피해액만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협력업체 중 상당수는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를 겪고 있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가정도 상당수라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22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명주택 신모(77) 회장은 지난 해 1~8월 사이 부도위기는 사실을 숨기고, 협력업체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신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큰 아들(50)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조차 없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자금을 빌려주고 110여억원을 받지 못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그는 또 9억원을 들여 전남 지역에 1000kW, 6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뒤 큰 아들과 작은아들

(47)에게 넘겨줬다.

신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갑질을 이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신 회장의 아들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 사장을 대상으로 ‘더 많은 납품계약을 하겠다’며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기다가 했다.

광명주택은 지난해 8월 부도가 났지만, 신 회장 큰 아들의 회사는 충남에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사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같이 협력업체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입힌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배임수재 등)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신 회장과 신 회장의 큰 아들이자 사장인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경찰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지역사회에 끼친 피해가 막대한데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돈을 빌려 1년 넘게 갚지 않고, 사실상 뇌물까지 받은 ‘오너일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경찰은 “서민들은 소액 절도사건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사건인데도 구속을 면하는 것을 보니 일할 의욕마저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 회장 등에 대해 추가 범죄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을 무려 3차례나 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응급실에서 옷 벗고 난동 취해, 출동 경찰에 결투 신청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던 40대 취객이 출동한 경찰에게 결투까지 신청했다가 경찰서행.

○…22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21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옷

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43)을 상대로 “한판 붙자”며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

○…조사결과 A씨는 상해 등 전과 10범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 /김용희기자 kimyh@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